

우리나라 의생활의 문제점

(Clothing Problems in Korea)

의생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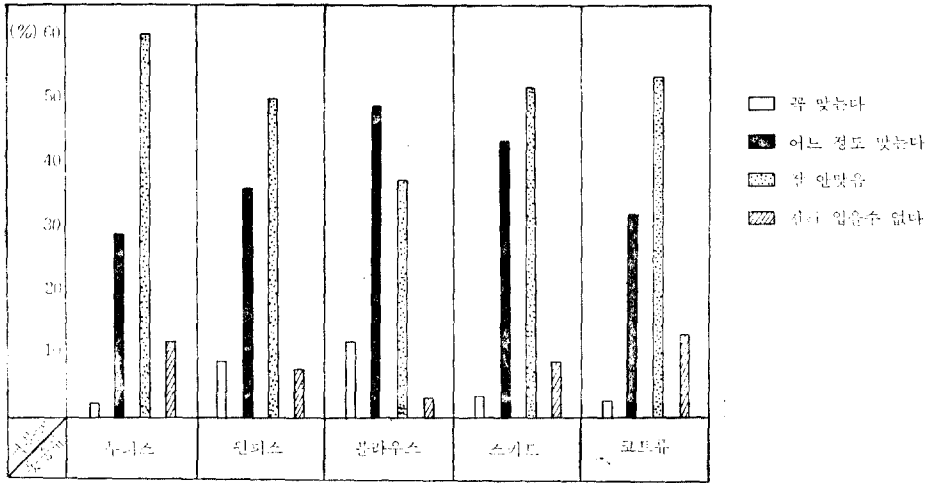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의생활이 漸次 多量生産의 既成服時代로 發展하려는 段階에 놓여 있고 몇年前부터 既成服센타라고 이름을 부쳐 業者들간에 販賣競爭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얼마전 日刊新聞에는 商工部에서 日本의 「JIS」마크와 같은 既成服標準化를 하기위해 審査基準을 세운다고 크게 報道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하려면 먼저 해야할 基本的인 重要한 問題가 있는 것을 이번의 消費者側으로서의 實態調査를 통하여 檢討해보고자한다. 또한 이것이 衣生活教育面에 있어서도 學問的 體系를 세우는데 重要한 問題點이기 때문에 몇 가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번 調査對象者는 女子大學生 100名, 職業女性 100名, 主婦 100名(20대~40대) 合計 300名을 對象으로 하였다.

(1) 體格調査를 위한 基礎研究로서 科學的인 人體計測問題와 標準치수設定問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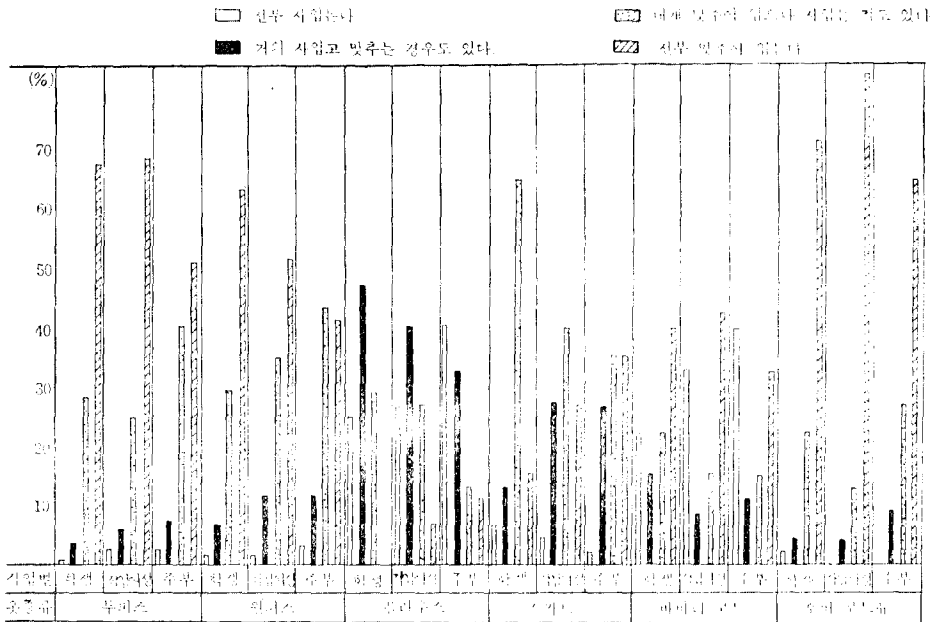
既成服이 發達한 美國에서는 1957年度에 體格調査의 必要性을 느껴 政府의 後援으로서 調査研究를 始作했으며 年次的으로 研究를 계속하므로써 衣生活發展에 크게 寄守하고 있고 日本에서도 1966년부터 本格的으로 體格調査委員會가 設置되어 研究를 始作하고 있다. 이러한 調査研究로서 그 나라의 標準치수를 設定하게 되고 이것이 모든 生活面을 標準으로 규격化하는데 基本이되는 것이다. 이번 調査에 나타난 意見을 보면 既成服의 利用度에는 기성복을 사입는다는 율이 극히 적으며, 전부 맞추워 입는다는 意見이 높다. 또한 既成服의 滿足度에서는 잘 안맞음의 意見이 가장 높고 꼭 맞는다는 意見은 아주 적은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의 既成服은 그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傾向은 衣服으로서의 基本的機能性으로 重要한 問題인 人體의 基礎研究로서 科學的 體格調査가 되어있지 않고 業者들간에 自己經驗에서 얻은 좁은 見地에서 統一性없는 치수를 參考로 하기때문에 Size의 不足으로서 既成服利用의 範圍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 衣生活教育面에서도 本構成에 製圖法을 없애고 Patten을 이용한 教育을 指向시키려해도 이러한 큰 課業의 해결없이 發展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루속히 우리나라에서도 全國的으로 政府의 후원을 얻어 體格調査가 實施되므로써만이 健全한 衣生活向上的 큰과업인 同時에 衣生活教育에도 學問的 體系를 確立하는데 基礎的인 第一步가 될 것이다.

(2) 衣服의 縫製에 關한 問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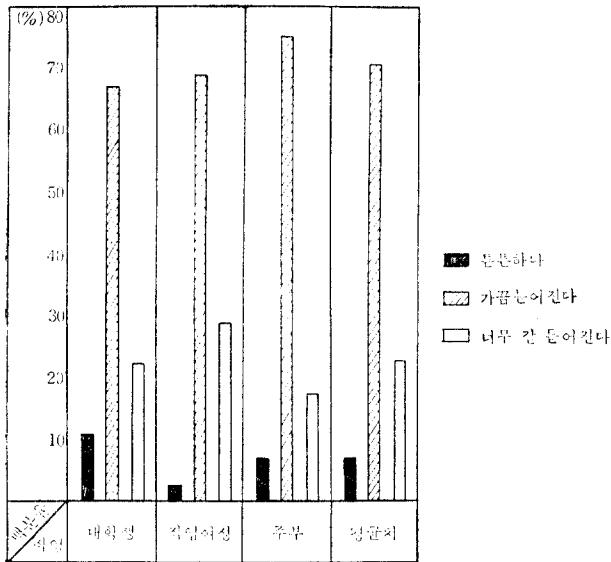
縫製面에서 消費者側으로서의 既成服에 關한 調査結果를 보면 가끔 틀어진다는 意見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縫製에 關한 研究의 重要性을 提示해주고 있다. 即 織物과 실과의



<圖 1> 기성복의 만족도에 대하여



<圖 2> 기성복의 이용도에 관하여(직업별 분류)



<圖 3> 기성복의 봉제에 관하여

關係 바느질의 딱과 옷감과의 關係, 織物의 曲面化 및 接合法에 관한 問題 등이 科學的인 研究를 통하여 基本設定을 하므로써 縫製의 理論的 體系를 세워야 할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의 市中에 나와있는 실의 종류와 既成服工場에서 使用하고 있는 실의 종류는 生産이 制限되어 있기 때문에 縫製에 關하여 消費者에게 滿足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問題는 消費者로서 研究를 통하여 제의 하므로써 生活을 向上케 해야 할 것이다.

이외 問題에 있어서도 人間生活에서 靜的動的인 體型變化의 把握問題, 또한 構成上으로 입기 좋은 옷에 關한 衛生學的 問題 등 衣生活分野의 諸問題를 年次的으로 研究해나가므로써 비로서 確固한 衣生活教育의 學問的體系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임원자 교수)